

◇ 천태종이 천태종사를 복원하고 한중 불교교류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중국 천태산 국청사에 건립한 조사기념당.

천태종, 중국청사에 조사당 건립

17일 낙성 법요식...지자·의천·상월조사상 봉안

대한불교 천태종(총정 도용)은 중국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에 '중화 천태종 조사기념당'을 건립하고 오는 17일 현지에서 낙성법요식을 거행한다.

천태종 역사의 맥을 복원하고 한중 양국 불교문화교류의 새 장을 열기 위해 건립된 이 조사당은 대지 5백여평에 건평 80평 규모. 총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전운덕스님의 원력으로 진행된 이 봉사는 93년 10월 착공, 1년 7개월만에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명·청대의 전통건축양식중에서 우수성을 살려 배어난 균형미를 보이는 조사기념당 안에는 천태종을 창시한 우리나라 천태 지자대사(智顓大師:538~597), 한국에 천태종을 개산한 고려 의천 대각국사(義天大師:1055~1101), 근대 한국 천태종의 중흥조인 상월 원각대사(上月圓覺大師:1911~1974)의 청동좌상이 봉안됐다. 조사당의 높이는 지자대사 160cm, 의천·상월조사 150cm이다. 세분 조사의 행적을 담은 비석이 건물 내부에 세워져 있으며, 벽면에는 양국 천태종의 법통 계승과정도 도표로 그려져 있다.

지도자 양성등 개혁안 확정

태고종 종단발전특위...23일 중회상정

태고종 종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금담스님)는 지난 9일 공청회를 열고 종단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이안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동안 열리는 제70회 임시중앙총회에 상정, 총회의 인준을 받아 종단개혁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각 분과 위원회 및 연석회의를 갖고 위상향상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해왔다. 특위의 종단발전개혁안 가운데 종단발전 지표로 △일반 정규 교육과 불교의 전문교육을 함께 이수하고 일정한 수행과정을 통한 지도자 양성 △불교 포교는 물론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등 범사회적인 복지, 봉사시설 확보 △전통종단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정하고 개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승려의 자질향상을 위해 △승려의 복식제도 개선 △선교교육 후속도의 승가교육제도 정착 △법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10제시 제도의 정착 △교부금 제도 도입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특위는 의식의 한 글화 작업, 포교교육단체 구성, 인권위원회 환경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사회활동단체 구성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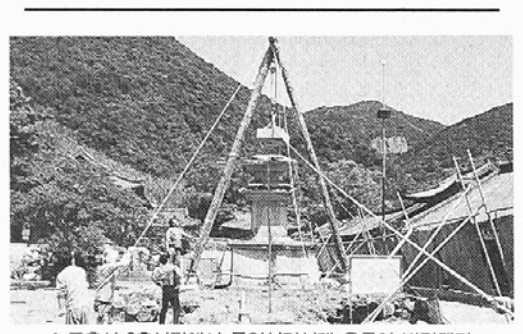
불교는 인류평화 구현 '열쇠'

하와이 대원사 20주 학술대회...7개국 학자 32명 참가

"세계 인류의 평화적 삶은 불교사상과 실천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학을 연구하는 세계 석학들이 모여 이 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하와이 대원사(주지 대원)가 주최한 제7차 국제불교학술대회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태국 등 7개국 32명의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하와이대학 재학생관에서 열렸다.

"불교와 평화, 그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열린 이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불교학의 거두 나카무라 하지메(中村 元)박사가 기조연설을 해 관심을 모았다.



◇ 표충사 3층석탑에서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발견됐다.

통일신라때 금동여래불상등 발견

밀양 표충사 석탑서

지난 2일 표충사(表忠寺) 3층석탑(보물 467호)에서 발견된 금동여래불상과 유리제 구슬은 통일신라시대 것이며, 명문석(銘文石)은 조선 세종때의 유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 강우방 학예연구실장 등 문화재전문위원들은 지난 3일 밀양 표충사 경내에서 이들 유물에 대한 조사의견을 발표했다.

일 소재 한국문화재 도록으로 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최창운)은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 오사카시립동양도자박물관, 야마토문화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재를 도록(圖錄)으로 발간했다.

이 도록에는 3개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유물 3천3백90여점의 목록과 4백66점의 사진도록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유물 소개 및 분야별 해설기기도 실고 있다. 미국·유럽박물관, 일본민예관 소장 한국문화재에 이어 네번째 도록을 발간한 재단은 중국 러시아 등지에도 조

와 토론이 주목받기도 했다. (차주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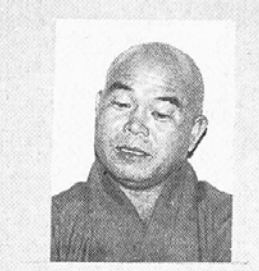
83년 첫 학술대회 이후 2년 단위로 개최돼 온 이 학술행사는 올해 대원사 창건 20주년에 맞춰 어느해보다 대규모로 마련됐다.

창건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4일 오후 7시에는

하와이=임태기 기자

인터뷰 하와이 대원스님

하와이에 유일하게 자리잡은 한국사찰 대원사가 올해로 창건 20주년을 맞아 해외 포교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에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슨 일일든지 성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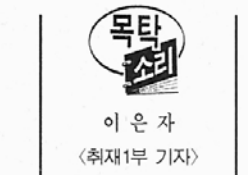
120만 주민들에게 '전법목탁' 원세워

올바르게 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20년 불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75년 6월 18일 목탁 한벌과 법복 한벌이 든 가방을 메고 하와이에 도착, 20년간 포교와 현지의 포교불사를 추진해온 대원스님, 스님은 지난 20년간 바르고 성실한 자세로 수행자의 모든 것이란 진리를 몸으로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세계인에게 불교적 사고방식과 삶의 지양분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서서입니다. 일련의 행사를 치르는 동안 많은 학자들이 적극 동참해 주었던 것도 저

우리 불자들이기에 분노를 더욱 감할 수 없다. 스님을 빙자한 이들 판매원들은 종교적인 특성을 노려 불



자들에게 시주하는 셈치고 구입 하라며 물품구입을 강요,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지비스런 불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알락한 상술을 쓰고 있다.

의 생각이 그들과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국의 불교현황과 학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대회 주제를 선정하는등 수많은 준비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신념을 변하지 않았다는 대원스님은 1백20만 하와이 인구 모두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날까지 전법의 목탁소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국내 불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와이 대원사는 대웅전, 선원, 조각 등이 한국전통 건축으로 지어져 있으며 현재는 대규모 문화관을 건립하고 있다.

서울 일제등의 한 불자도 지난 4월 사찰순례법회를 가던중 경기도의 한 휴게소에서 지리산에서 만들었다는 건강식품을 사라는 스님을 만나 반강제로 물건을 구입, 효력이 전혀 없었으나 그런 사실을 이웃에

게 이야기하기조차 참피했다 고 말했다. 사이버승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탁발행위는 이미 종단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조계종 호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냐고 역할 또

해외통신

인도 아람 상원의원 니와노 평화상 수상

종교협력을 촉진하고 세계 평화에 헌정한 공헌을 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제12회 니와노(野野)평화상 시상식이 지난달 12일 동경의 센쥬리호텔에서 열렸다.

올해의 수상자는 인도의회 상원의원인 아람박사로 선정돼 상장과 상금 2천만엔이 수여되었다. 아람박사는 1962년부터 시작된 중국·인도 분쟁시 '델리·북경 평화여행'을 조직, 대화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는 등 분쟁종결에 큰 공헌을 했다. 최근에는 종교간 협력에도 힘을 쏟아 WCRP(세계종교평화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장스님 일대기展 5일 일본 무림사서

일본의 아이치현(愛知縣)의 진언종 무림사에서는 지난 5일 불전의 한역화에 큰 업적을 남겼던 당대(唐代)의 현장(玄奘)스님 일대기그림전이 열렸다.

서유기에서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현장스님은 629년에 서역구급의 길을 떠나 인도 각지를 돌며 경전과 불상을 구해 645년에 귀국한 후 '반야심경'과 '대반야경' 등을 번역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중국불교협회의 현지조사에 기초를 둔 불화56점이 전시되었고, 중국 서안시(西安市)의 대안탑(大雁塔)을 복원 그 제작식도 함께 열렸다. 이번에 복원된 대안탑은 중국정부부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실제 크기의 1/3로 복원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유일한 것이다.

한 아서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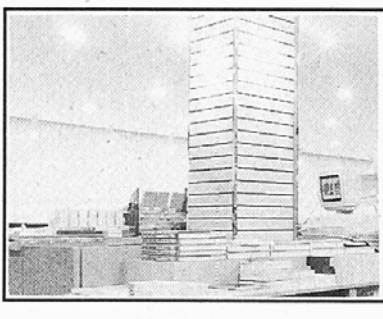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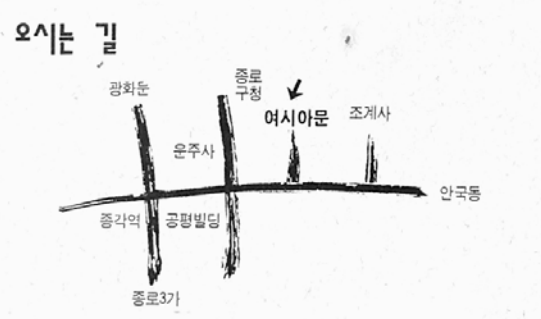
더불어 우리 불자들도 자비의 진정한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자들의 거룩한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악덕인들, 자비의 고발정신 발휘로 구제하고 불교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우리불자들의 몫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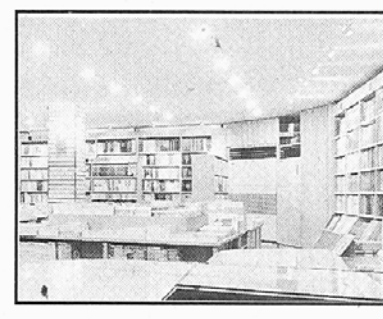
그렇게 될때 모두가 믿고 사는 아름다운 사회도 불자들의 손으로 엮어갈 수 있을 테니까.

불은가득 · 법향가득

책방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 (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회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4.1부터 시행)
-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